

109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5)

주제:대만과 일본 지식인의 대만을 바라보는 시선 및 문예창작

양지경(楊智景) 교수

(중정대학교 대만문학과 문예창작대학원)

제 5 차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강연에서는 중정대학교 대만문학과 문예창작대학원 학장인 양지경(楊智景) 교수를 초청하였다. 우선 양 교수는 서(徐) 총장이 제기한 ‘대만 내 일본인의 문학 작품이나 양규(楊逵) 등과 같은 일본 내 대만인의 문학 작품은 대만문학인가 아니면 일본문학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였다. 양 교수는 일제강점기의 시마다 킨지(島田謹二) 교수가 제기한 ‘외지문학’의 개념으로 이 문제에 응답하였다. 양 교수는 신역사주의 또는 후기 현대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위에 언급된 작가들의 대만 작품들은 일본문학의 단면을 더욱 다양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양 교수는 1895 년부터 1945 년까지의 50 년을 네 시기로 나누어 소개했다.

첫째, 식민지 초기(1895-1916)이다. 각종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탐험기, 르포르타주, 모험소설 등의 문학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태양』 『도쿄 매일 신문』 등의 잡지에서는 대만에 대해 이원대립식 묘사가 이루어졌다. 야만, 미개화, 불결 등의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대만의 후진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문명과 발전에 대비가 되도록 하였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와 동시에 대만의 풍요로움과 검소함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예 창작에 나타난 이러한 묘사 방식으로 일본 본토에서는 새로운 식민지에 대한 이미지를 전파하였다. 작품으로는 무라이 겐사이(村井弦齋)의 《일출의 섬》이 있다.

둘째, 식민지 관광 발전시기(1916~1930)이다. 발전의 배경은 (1) 교통시설 완비: 대만 종관 철도 개통 (1908 년), 대만 내륙 정기항로 확립 (1912 년), (2) 관광기구 설립: JTB 타이페이 지부 개설 (1914 년), (3) 효율적인 홍보활동: 20 주년 기념 대만 산업장려회 (1915 년), (4) 여행환경 정비: 동궁 황태자 대만 행차 (1923 년)이다.

그리고 여행 형태는 개인 여행, 식민지 시찰 여행, 문화 선전 여행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개인 여행 (사토 하루오(佐藤春夫)의 대만여행)이다. 사토 하루오는 일본인 작가의 대만 관광에 계기를 마련하였다. 1920 년 6 월부터 10 월 초까지 석 달 반 동안의 여행을 통해 「메뚜기의 여행」, 「일랑일랑꽃(鷹爪花)」, 「여계선기담(誠扇綺譚)」, 「식민지 여행」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사토

하루오의 「시선」에서는 대만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누어 묘사하였다. 발전소 건설, 교육 현장 등 정부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 등이 대만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동시에 작가는 원주민들의 생활 풍경, 전통 생활과 자본주의의 충돌 현장 등 대만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계를 초월하는 관념들을 구현해 내었다. 사토 하루오의 「시선」은 수동적 입장의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생각할 여지를 남긴 의식 있는 관찰자로서의 다중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식민지 시찰 여행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대만 여행이다. 소호는 메이지 유신 이후 중요한 정치학자이었다. 1929년 정부의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일본의 대만 통치 공적을 체험하였다. 전략적으로 기획된 관광 일정을 통해 저작된 그의 저서 《대만여행기》는 때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때로는 파노라마 방식의 「시선」으로 기술한 특징이 있다. 여행 일정 전반에 제국의 흔적을 따라 순례하는 정치적 색채가 드러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선전 여행(여성 문화 강연회)이다. 여성 마이니치 신문사 등이 주최하여 1930년에 성행하였다. 신문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나 동시에 발언 제한 및 행동 감시도 받고 있었다. 문예 작품으로는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의 〈식민지에서 만난 여자〉, 기타무라 가네코(北村兼子)의 《신대만 행진곡》 등이 있다. 이들 일본 여류 작가들의 저서는 남성 문인 위주로 대만을 바라본 시선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 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만 지식인의 자기관찰과 비교하였는데, 장위수(蔣渭水), 퇴화(賴和)는 식민 통치를 비판하면서도 식민지 현대여성의 입장에서 대만에 대해 자아성찰을 실시한 것으로 보았다. 또 진징파(陳澄波) 선생을 예로 들어 그가 그린 「저수지 부근」이라는 작품에는 도시 내 현대화된 시설이 보인다고 하면서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수많은 현대화의 상징들은 식민지 정부가 자랑했던 치적들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진징파 선생의 관점이 타인으로서의 일본인의 관점과 다른 점은 그가 동경했던 현대화가 전통을 융합한 것이며 대만이 주체가 되어 대만 발전을 촉진하는 현대화였다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타인의 관점과 자기 관점의 차이라고 언급하였다.

셋째, 「무사(霧社)사건」 이후 (1930-1937)이다. 「무사(霧社)사건」 이후 아조라 분코(大鹿卓), 나카무라 지헤이(中村地平) 등 일부 작가들은 「번부(蕃婦) 문제」를 계기로 원주민 여성과 산지 일본인 경찰 간의 관계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이밖에 이토 요스케(伊藤永之介)의 《평지번인(平地蕃人)》(1930년 12월), 타무라 타이지로(田村泰次郎)의 《일월담 공사(日月潭公事)》(1934년 8월) 등은 노동 문제 및 착취의 관점에서 대만의 상황을 조명한 작품들이었다.

넷째, 전쟁시기 (1937-1945)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전 여행이 동원되었다. 기쿠치 칸을 위시한 일본 본토 작가들은 「문예 후방 운동 강연회」(1940년)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 구성원들의 대만 방문 기록 혹은 매체와의 인터뷰로부터 이들이 대만을 일본의 남진 정책의 연결 거점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니와 후미오(丹羽文雄)의 〈대만의 숨결〉, 사다이나코(佐多稻子)의 〈대만 여행〉은 다카사고 의용대의 충성스럽고 용맹한 이미지와 지원병의 충성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야만스럽고 미개한 민족으로 낙인 찍혔던 원주민은 전시 하에서 찬양의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이밖에 대만의 황민화 운동의 성과 역시 당시 대만을 방문한 작가들이 보였던 주요 관점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s://Eur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이현주(李炫周)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